

RESEARCH SEMINAR 2026

# 금융포용성과 금융 이해력 연구 국가 간 횡단 분석

2026.04.25.

[최병일/강원대학교]

# 금융 포용성의 비약적 확대 (2000-2024)

## 기술 주도의 접근성 혁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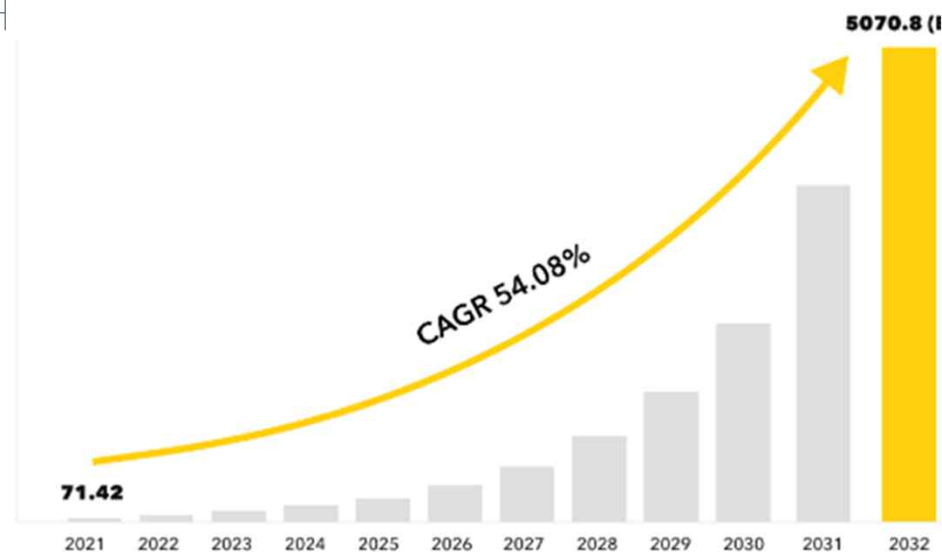
지난 20년은 마이크로 파이낸스에서 핀테크로 이어지는 '접근성(Access)'의 황금기. 모바일 머니와 디지털 बैं킹의 도입으로 전통적 금융 소외 계층이 대거 제도권으로 편입.

- 2000년대 초반: 마이크로파이낸스 확산과 빈곤층 신용 공급
- 2010년대: M-Pesa 등 모바일 머니 혁명 (아프리카, 아시아)
- 2020년대: 팬데믹 이후 비대면/디지털 금융의 폭발적 성장

51% → 76% 전 세계 성인 계좌 보유율 (2011-2021, World Bank Findex)

## GLOBAL NEO BANKING MARKET

Size by 2021 to 2032 (USD Billion)



# 금융 접근성의 패러다임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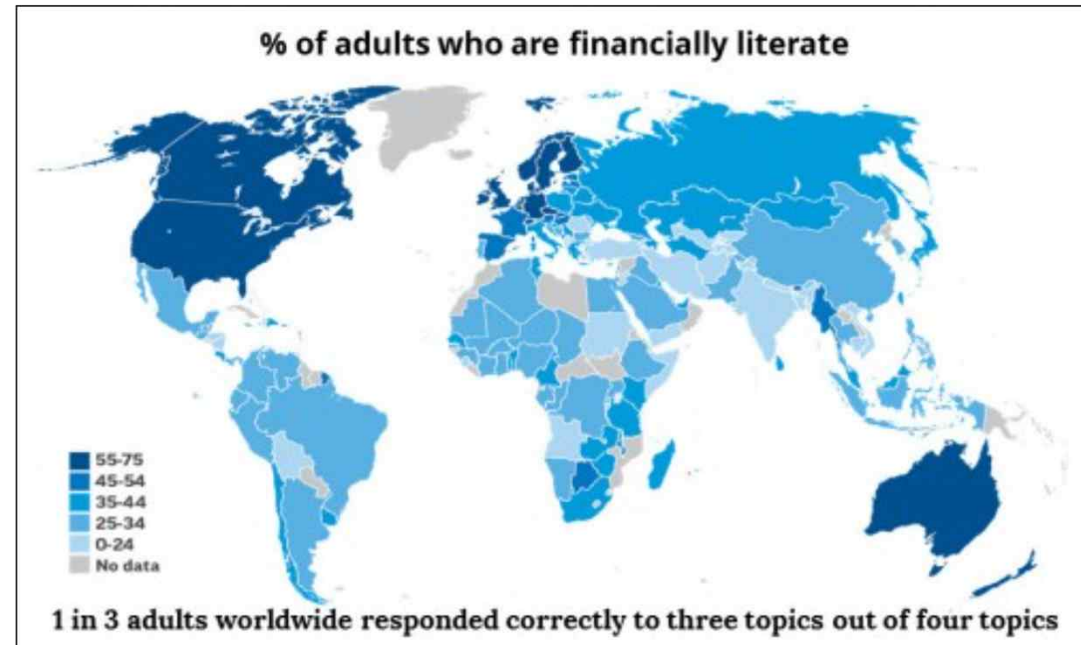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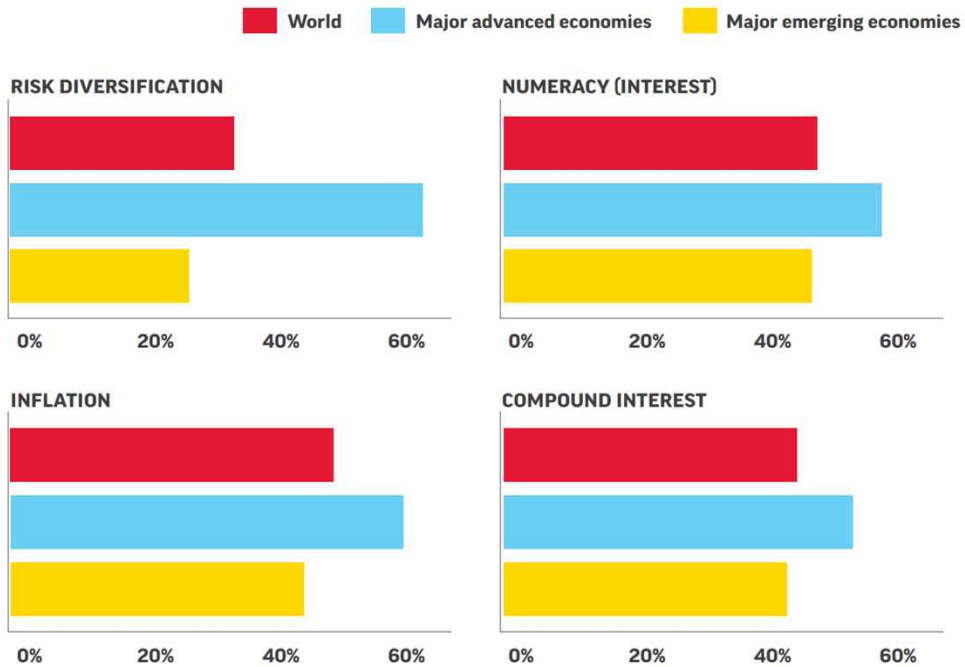
---

## 물리적 제약 극복

과거 금융 참여의 최대 장벽이었던 지리적·제도적 제약이 스마트폰과 모바일 앱을 통해 획기적으로 해소

- 개발도상국의 도약: 금융 인프라가 부족했던 국가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공식 금융시스템 접근이 가능해짐.
- 디지털 금융포용: 단순 접근을 넘어 핀테크, 비대면 거래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 (World Bank, OECD).
- 핵심 요인: 디지털 금융 인프라 확충 + 모바일 서비스 보급 (Nurkhalimah, 2025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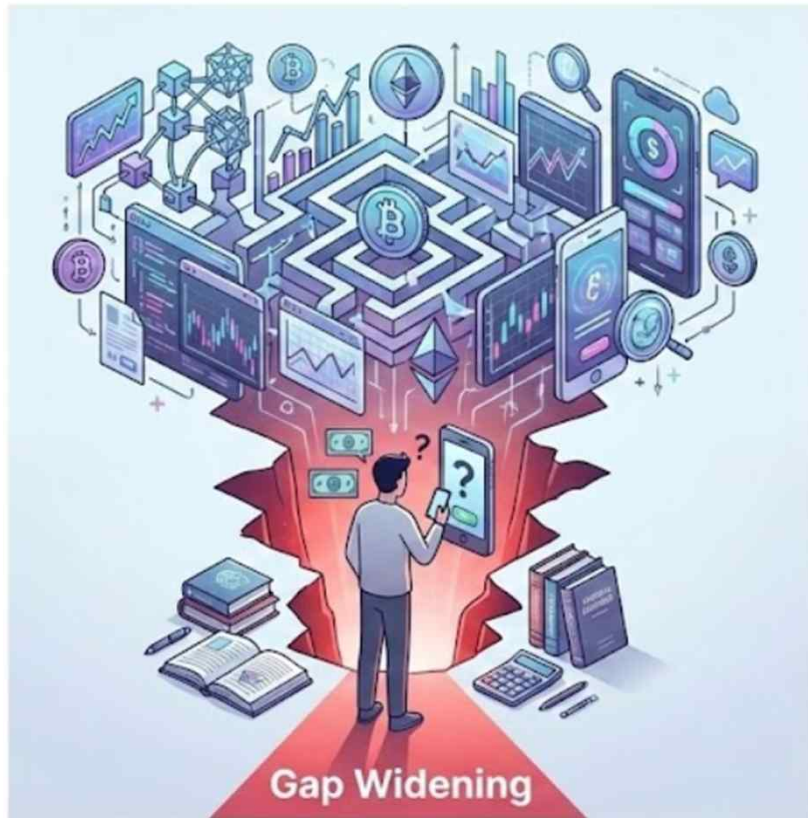
# 경제수준과 금융이해력



Source: S&P Global FinLit Survey (2014)

Source: S&P Global FinLit Survey.

# 금융 이해력의 정체와 복잡성 심화



## 따라잡지 못하는 역량

금융 상품의 복잡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반면, 소비자의 금융 이해력은 제자리걸음. '디지털 금융 취약성'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.

- 정체된 지표: 전 세계 금융 이해력 평균은 약 33% 수준에서 정체 (S&P Global FinLit Survey)
- 복잡성 증대: 암호화폐, BNPL,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의 대중화
- 결과: 계좌는 보유했지만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사기/부채 위험에 노출

Gap Widening 상품 복잡성 증가 속도 > 금융 교육 효과

# 급격한 확산의 이면 (새로운 위험)



## 단순한 '접근(Access)'의 한계

정보화에 따른 급격한 접근성 확대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



### 보안 및 사기 위험

디지털 사기, 해킹 등 보안 리스크가 확산되며 취약 계층을 위협.



### 상품 복잡성 증가

불완전 판매 및 과도한 부채 위험 노출 가능성 증대.

# 금융이해력 질적 포용

금융포용의 양적 확대와 함께 '질적 포용(Qualitative Inclusion)'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이해력 제고가 필수



## 이중적 구조

기술 발전은 포용성을 촉진하지만,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에게는 오히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음.



## OECD의 경고 (2020)

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금융이해력은 금융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,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제 조건임.



## 지속적 제약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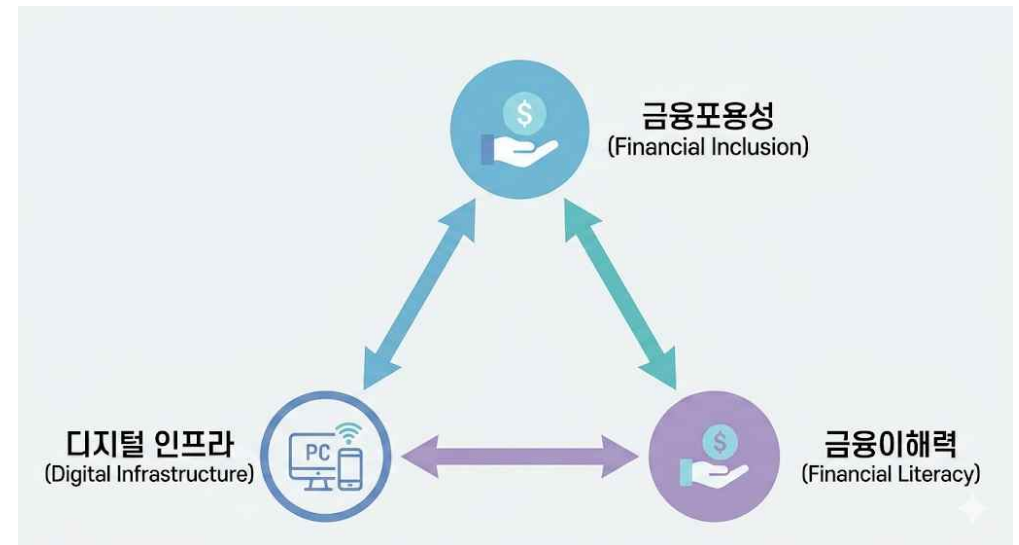
Yadav & Banerji (2024): 접근성 확대에도 불구하고, 실제 이용 및 관리 단계에서는 '디지털 금융이해력 부족'이 여전한 장벽.

# 연구 방향 및 시사점

---

디지털 인프라 ↔ 금융포용성 ↔ 금융이해력

디지털 인프라가 금융포용을 매개로 이해력에 영향을 실증 분석.



# 표본 구성 및 정제

## 최종 표본 (Final Sample):

Global Findex 및 WDI 데이터 결측치가 있는 국가 제외

분석 규모: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한 총 82개 관측치  
(Observations) 분석

## 자료 성격

3개 연도가 혼합된 국가 수준의 통합 데이터  
(Pooled cross-country dataset)

## 데이터베이스 통합

- 금융 이해력: OECD/INFE 서베이  
(국가별 금융 이해력 측정)
- 금융포용성: World Bank Global Findex  
(계좌 보유, 저축, 신용 등)
- 거시경제: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(WDI)  
(GDP, 인플레이션 등)

# 종속변수: 금융 이해력 (Financial Literacy)

---

측정 프레임워크: OECD/INFE의 3요소 모델 적용 및 연도별 척도 차이 보정(Rescaling 0~100점)



## 금융 지식

기본 금융 개념  
복리,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이해도



## 금융 행태

예산 수립, 저축, 청구서 적기 납부  
등 실제 재무행동



## 금융 태도

장기적 계획 선호 및 돈에 대한  
가치관

# 금융포용지수(PCA)

금융포용성 관련 변수들은 다중공선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PCA 수행

PCA에 투입된 4개 지표

## 계좌 보유율

표준화 후 PC1에 양(+)의 적재

## 금융기관 저축

표준화 후 PC1에 양(+)의 적재

## 저축 경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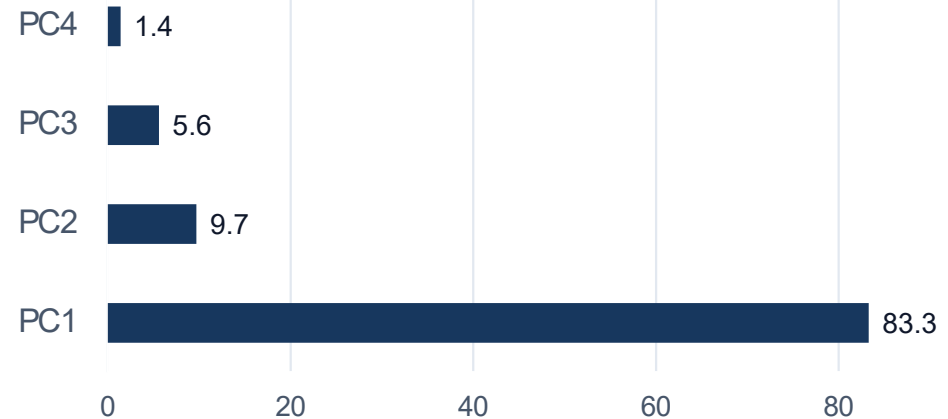
표준화 후 PC1에 양(+)의 적재

## 신용카드 보유

표준화 후 PC1에 양(+)의 적재

※ 디지털 결제 이용률은 별도 독립변수로 분리

## 분산 설명력



PC1만 유지 → 전체 분산의 83.28% 설명

# 통제변수

---

## ☐ 디지털 결제 활용

### Digital Payment Usage

전통적 금융 접근성과 구별되는 '디지털 차원'을 포착하기 위해 PCA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변수로 분리하여 분석

## ☑ 주요 통제변수

- 경제 수준: 1인당 GDP (GDP per capita)
- 디지털 인프라: 인터넷 사용자 비율
- 거시 환경: 인플레이션, 도시 인구 비율
- 금융 심도: 민간 신용 비율 (% of GDP)

# 연구 방법론: 회귀분석 모형 설정

## 회귀모형

$$y_i = \beta_0 + \beta_1 FIIndex_i + \beta_2 DigiPay_i + \beta_3 GDPpc_i + \beta_4 Internet_i \\ + \beta_5 Urban_i + \beta_6 Inflation_i + \beta_7 PrivCredit_i + \beta_8 Developing_i \\ + \beta_9 D_{2016,i} + \beta_{10} D_{2023,i} + \epsilon_i$$

## 추정 방법

최소자승법(OLS) 및 강건한 표준오차(Robust Standard Errors)

## 주요 독립변수

PCA 기반 금융포용 지수(FIIndex), 디지털 경제 활용도(DigiPay)

## 종속변수

금융지식, 금융행위, 금융태도 (각각 0-100점)

## 통제변수

1인당 GDP, 인터넷 이용률, 도시화율, 인플레이션, 기간 더미 등

# 연구 방법론: 회귀분석 모형 설정

$$y_i = \beta_0 + \beta_1 \text{FIIndex} + \beta_2 \text{DigiPay} + \beta_3 \text{GDPpc} + \beta_4 \text{Internet} + \dots + \varepsilon_i$$

추정 방법: 최소자승법 (OLS) 및 강건한 표준오차 (Robust Standard Errors)

주요 독립변수: PCA 기반 금융포용 지수 (FIIndex), 디지털 결제 활용도 (DigiPay)

종속변수 ( $y_i$ ): 금융지식, 금융행위, 금융태도 (각각 0-100점)

통제변수: 1인당 GDP, 인터넷 이용률, 도시화율, 인플레이션, 민간신용 비중 등

# 금융 지식 (Financial Knowledge)

## 금융포용성(PCA)의 영향

계수: **-2.5 (p<0.10)**

단순 금융 접근성은 금융 지식과 미약한 관계를 보이거나 오히려 음(-)의 방향성을 띠.

**1인당 GDP: 유의한 양(+)**의 효과 경제적 여유가 학습 기회를 제공

**인터넷 사용자: 유의한 양(+)**의 효과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지식 습득

독립변수	계수	SE	P-값	Sig
Const	28.08	9.86	0.01	***
PCA_findex	-2.46	1.30	0.06	*
Digital Payment	0.11	0.10	0.26	
GDP per capita	0.0001	0.00	0.04	**
Internet Users	0.21	0.11	0.05	**
Urban Pop	0.04	0.06	0.48	
Inflation	0.73	0.31	0.02	**
Private Credit	0.08	0.02	0.00	***
D2016	-4.75	2.54	0.07	*
D2023	-5.58	2.07	0.01	***
Developing	-6.84	2.86	0.02	**

# 금융 행태 (Financial Behaviour)

## 금융포용성(PCA)의 영향

###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(+)<sup>의</sup> 관계

공식 금융기관 이용은 예산 수립, 저축 등 건전한 금융 습관과 직결됨.

### 인플레이션: -0.63\*\* (음의 영향)

물가 불안정은 장기적 계획과 건전한 행동을 저해함.

독립변수	계수	SE	P-값	Sig
Const	76.72	9.54	0.00	***
PCA_index	4.77	1.26	0.00	***
Digital Payment	-0.14	0.09	0.15	
GDP per capita	0.00	0.00	0.66	
Internet Users	-0.08	0.10	0.45	
Urban Pop	0.03	0.06	0.65	
Inflation	-0.63	0.30	0.04	**
Private Credit	-0.02	0.02	0.27	
D2016	2.45	2.46	0.32	
D2023	1.78	2.01	0.38	
Developing	4.89	2.77	0.08	*

# 금융 행태는 습관의 결과

---

## 제도적 노출 효과

금융 행태는 단기적 지식 습득보다는 **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노출**을 통해 형성된 습관.

계좌 및 저축 상품의 이용 경험이 축적되면서 의미 있는 재무 행동(Discipline)이 유도.

## 디지털의 한계

디지털 결제 도구 자체는 거래의 편의성을 제공으로 제한.

단순한 앱 사용이 개인의 재무 관리 역량이나 저축 습관을 자동으로 개선하지는 않음을 시사.

# 금융 태도 (Financial Attitude)

## 금융포용성(PCA)의 영향

**계수: 4.11\* (p<0.01)**

금융포용성이 높을수록 미래 지향적이고 신중한 금융 태도를 가짐.

독립변수	계수	SE	P-값	Sig
Const	64.84	8.71	0.00	***
PCA_index	4.11	1.15	0.00	***
Digital Payment	-0.08	0.08	0.33	
GDP per capita	-0.00	0.00	0.16	
Internet Users	0.02	0.09	0.83	
Urban Pop	-0.06	0.05	0.24	
Inflation	-0.12	0.27	0.67	
Private Credit	-0.04	0.02	0.04	**
D2016	14.33	2.25	0.00	***
D2023	7.34	1.83	0.00	***
Developing	1.13	2.53	0.66	

# 태도와 제도적 신뢰

---

## 제도적 환경 (Institutional Context)

금융 태도는 기술(Digital)이 아닌 **제도적 신뢰**에 의해 형성.  
제도권 금융 경험이 축적될수록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장기적 안목이 배양.

## 시간적 변화

2016년, 2023년 모두 2020년 대비 긍정적 태도를 보임  
(2020년 팬데믹 시기의 태도 악화 반영).



# 결론

주요 변수	지식	행동	태도
금융포용지수(PCA)	약한 음	양	양
디지털 결제 이용	0	0	0
1인당 GDP	양	0	0
인터넷 이용률	양	0	0
물가상승률	양	음	0
민간신용/GDP	양	0	음
개발도상국 더미	음	약한 양	0
연도 효과	음	0	양

## 주요 결론

- 1 금융포용은 지식보다 행동·태도와 더 강하게 연결.
- 2 디지털 결제 확산은 세 차원 모두에서 견고한 효과는 없음.
- 3 개발도상국 정책은 접근성 확대에 교육·정보·제도 신뢰를 결합함

“더 많은 금융서비스 접근” 이 자동으로 “더 나은 금융역량”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

## 주요 연구 결과 (Key Findings)

---



### 다차원성

금융 이해력의 3가지 구성 요소인  
지식, 행태, 태도는 각기 다른 메커  
니즘으로 결정



### 제도의 힘

금융 접근성은 단순 지식 전달을 넘  
어, 실제 **행동 변화와 태도 형성을**  
이끄는 주요 기제



### 디지털의 한계

핀테크는 거래 비용을 낮추지만,  
본질적인 금융 가치관이나 지식을  
개선하지는 못함

# 정책적 시사점



## 인지적 불일치

단순한 금융 접근성 확대는 행위와 태도는  
변화시키나, 인지적 지식의 비례적 향상으로  
는 직결되지 않음



## 디지털의 한계

디지털 결제 수단의 단순한 보급  
(Digital Pay)은 금융 이해력 향상에  
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함



## 정책 패러다임 전환

디지털 금융 확산 시, 금융교육과 함께  
소비자보호 장치가 필요. 단순 보급만으로는  
실질적 이해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

금융 정책의 지향점: " 단순한 접근(Access)을 넘어 역량(Capability)과 질(Quality)의 시대로"

# 연구의 범위 및 한계

---

## ⚠ 해석의 주의점

국가 단위 거시 데이터의 특성상 인과관계보다는 **연관성(Association)**으로 해석.

개별 정책의 직접적 효과보다는 거시적 트렌드와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점.

## 🚫 방법론적 제약

- 표본 수 제한: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 수(N=82)로 인해 복잡한 비선형 모형 적용에 한계
- 이질성 통제: 국가 내 개인별 이질성(Within-country heterogeneity)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움

"금융 접근성은 행동(Behavior)을 바꾸지만,  
지식(Knowledge)은 교육을 통해 완성된다."

---